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통과 협업 활성화 조직문화 혁신 추진

정읍시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협업 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 간·부서 간 소통을 위한 '협업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협업 포인트 제도는 직원이 다른 부서의 직원과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장비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한 경우, 협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포인트로 주고받는 공직 내부 시스템이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부서 간 업무 장벽을 줄여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포인트는 '나라 이음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고창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3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고창군 자체 시책사업이다. 귀농귀촌인 3가구 이상이 공동체 거주지 조성을 희망할 경우 마을 기반시설(진입로, 상하수도, 배수로, 옹벽 등) 설치비로 5000만원(3~5가구)에서 1억원(6가구 이상)을 지원한다.

그동안 고창군에서는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5개소 80세대의 귀농귀촌인이 소규모 공동체 거주지를 조성해 고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4세대가 정착 예정인 아산면 학전 다온마을은 현재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창군 전입 5년 이내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 3세대 이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건축 착공신고서를 첨부해 귀농귀촌팀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방위 인구감소 막기 '총력'

정읍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 청년 일자리 만들기 ·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정읍시가 지역적·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을 접목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 인구감소 속도 완화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정읍 인구수는 10만 5,000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만 4,300여 명이 감소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방지에 주력, 생활(관계)인구 늘리기와 인구 활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시책들이 돋보인다.

시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7억원을 활용해 청년취업 준비반을 운영, 지역 일자리 취업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해 청년들의 정착지원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도 추진한다. 시는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또 둘째에게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사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대학 신입생 장학금·구직지원금 지원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전입 지원금 지원, 기업 유치 관련 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시는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인 유입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도 마련해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상황실 운영 신속 대응 예정

부안군, 설 명절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감시 · 점검 실시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11~20일)는 자율점검 유도 공문발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취약지역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2단계(21~24일)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부안군청 환경과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3단계(25~27일)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기간 가동 중단 후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연 12월~2023년 3월)에 포함돼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 취약업소·지역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활동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나 오염사고 목격 시 군청 환경과 상황실(☎ 063-580-4429) 또는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농산물 잔류농약 463개 성분 분석 무료 지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 도모

정읍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이 의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하는 곳이다.

잔류농약 463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의 성분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며 550여 건 이상을 분석,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분석 장비(LC-MS/MS)를 추가 도입해 잔류농약 분석 건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의 농산물 시료(1~3kg)와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 등록증)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분석실 이용 활성화와 농업인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한 국제 숙련도(FAPAS) 평가와 국내 농촌진흥청 주관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잔류농약 분석 능력에 대해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발전과 나라를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회장 김성식 목사) 주최로 열렸다.

고창 발전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 열려

고창군 발전과 나라를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회장 김성식 목사) 주최로 열렸다.

12일 오전 6시30분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고창군 간부 공무원, 고창군 관내 교회 목사와 신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곽희매 목사가 '고창군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박형관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를 주제로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기독교연합회 김성식 목사는 "고창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고창군민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사에서 "고창군은 올해를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2023 세계유산도시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며 "지역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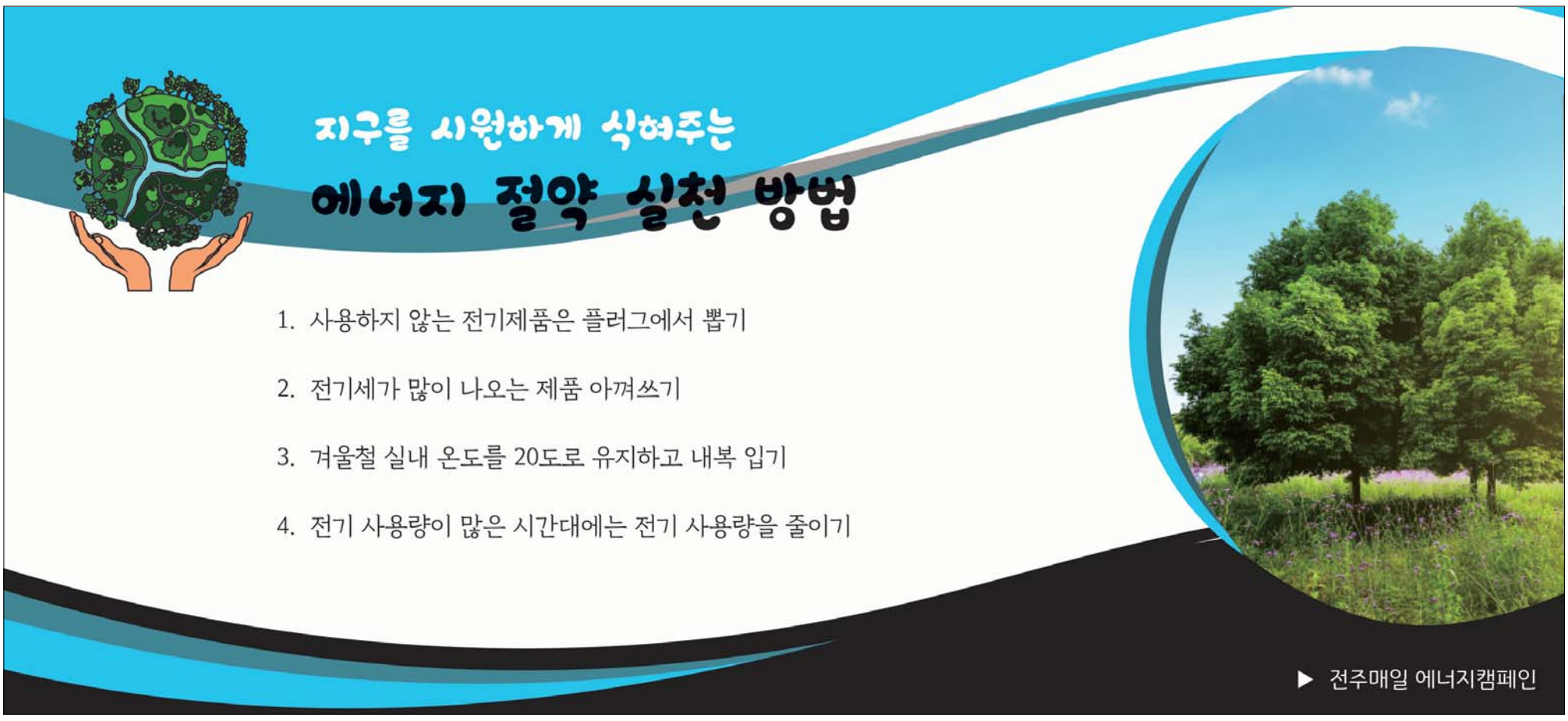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부안군, '제1기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작품 전시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제1기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작품 전시회'를 오는 18일까지 부안군청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안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활동 주체인 액션그룹 1기(12개소)를 선발하여 20여개의 공동체사업 아이템을 성과물로 얻었으며, 올해는 2월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과 함께 2기 액션그룹 모집을 진행하여 단계별 액션그룹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제1기 액션그룹 아트팜(대표 심성희)은 생활 속 버려지는 물건이나 고쳐 쓰고 싶은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 바다향·나무거울 등을 개발하였고, 한지비탑(대표 박수정)은 부안 지역문화와 한지를 접목해 청자디자인 한지부채 공예품 등을 성과물로 만들어냈다.

심성희 아트팜 대표는 "추진단과 소속 작가들의 노력으로 멋진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며, "정성 들여 준비한 전시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모여 지역을 살리는 행복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액션그룹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활력이 넘치는 부안을 만들고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